

## 전여대협 총선 투쟁 계획서

1. 현재 우리 나라 16대 총선의 의미
2. 김대중 정권의 반여성적 행각
3. 10대 요구안
4. 10대 요구안 활용 방안 및 총선 투쟁 방안
5. 낙선 대상자

### 1. 현재 우리 나라 16대 총선의 의미

총선은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이 땅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그 국회의원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의 총선은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에서 대리인을 선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 나라가 주권국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는 어떠한가? '자주 국방'이라 국방부 앞에 쓰여 있기는 하나 전사 작전권은 미국에게 있으며, 또한 미군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불평등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하나라도 주동성을 쥐지 못한 이 나라의 선거는 실제로 민중의 삶을 증진시킬 책임지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자본주의와 기득권에 의해 심하게 조작되어지는 가부장적 요소나 여성역할을 보았을 때 여성민중의 삶은 2.3배나 더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총선은 여성민중을 억압구조로 돌아놓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16대 총선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수동적인 자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 스스로 일어나 낙선을 시키고 낙선을 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투쟁으로 살 길을 찾겠다는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민중들 스스로의 정치적 자각이 드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민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낙선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성민중의 삶을 책임지라는 각계 각층의 요구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흐름을 상승발 전시켜 이후의 여성민중 또한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김대중 정권의 반여성적 행각

김성희씨를 살해한 매카시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에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적인 진규의 목소리에도 어떠한 대답도 없이 오히려 일본에게 독도며 김치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모습에서, 그리고 작년 광장제도를 입법화하겠다고 불의를 일으켰던 모습에서, 미성년 매매춘 근절을 위해 김강자 서장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매춘여성들에게 풀려지는 사회적 시선이나 그들이 갈 곳은 여전히 없는 이러한 상황들,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만 가는데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모습 등, 김대중 정권이 집권 이래 진정 민중을 위해, 여성민중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16대 총선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

의 집권 안정을 꾀할 것인가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정책을 생산해서 많이 지켜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 여성민중의 삶의 내용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정책인 것이며 또한 지켜진 정책이라고 해도 얼마나 이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번 총선 투쟁은 명확히 김대중정권을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김대중정권이 집권한 이후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성정책이 강화되어서 여성단체에는 아직 김대중정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권의 사대매국성과 반여성성을 알리면서 전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끌어내 리지 않는 한 여성의 자주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김대중정권의 반여성적인 본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단체와 함께 낙선낙선 운동의 연대 속에서 김대중정권 퇴진의 공분을 모아내도록 합시다.

김대중 정권의 반여성성을 알려내면서 김대중 정권 총결산 국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김대중 정권 대선 여성정책 공약

### 3. 10대 요구안

####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하고 주한미군 철거시키자.

올해만 해도 벌써 2명의 기지촌 여성이 살해되었다. 여성민중의 살 길을 차단하여 기지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더니 주한미군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에 손 하나 뽀짝 얹고 있다. 기지촌 여성의 죽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이 땅에 퇴폐·향락 문화를 들여놓았으며 성의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더군다나 여성민중을 강간, 폭행 등 노리게 인양 취급하고 제 성에 차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목숨을 짓밟았다. 그리고 올해는 2번째나 기지촌여성들이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 처벌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고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 철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일본에 대해 명확히 사죄·배상을 요구하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적·계급적·성적·인종적 억압이 모두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가 50여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50여년동안 위안부였음을 숨기고 살아갈 수 밖에 없도록 했으며 또는 생을 자포자기하고 매춘여성, 기지촌여성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가부장적 요소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 팽배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이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조장, 유포하는 사회구조 및 일본놈들에 대한 사죄, 배상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일본놈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IMF 이후 여성에 대한 억압은 더욱 극명해졌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여성의 본업은 '가정'이다 라느니, 남성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 여성 정리해고가 우선이지 않겠느니 하며 여성에 대한 2중 억압, 고통의 굴레를 더욱 덧씌워갔다. 여성 또한 명백한 이 사회의 주체이며, 구성원이다. 공통이 책 임져야 하며 자본가가 책임져야 할 가사노동은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여성에게는 2중의 고통을 자본가 및 기득권에게는 2배의 이득을 갖게하는 이 사회구조 철폐, IMF 협약 철회시키고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 한다.

4) 신자유주의와 WTO 반대하고 여성농민의 삶을 보장하라.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농가부채에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농민들의 수 또한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IMF여다가 신자유주의와 WTO까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만 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존권 또한 보장되지 않는 농가가 많고 더군다나 가장 가부장적인 요소가 큰 계층이어서 여성농민들은 몇 겹의 하중과 차별을 받고 있다. 자주농업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신자유주의와 WTO를 반대하고 여성 농민의 삶을 보장하고 여성농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상충을 위해서 힘쓸 것을 요구한다.

5) 매매춘을 근절하고 매매춘 여성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라.

매매춘은 명백하게 사회구조상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이다. 그 어렵어도 불구하고 사회의 책임은 생각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니 하며 매매춘 여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의 삶을 외면하는 잘못된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공창제도 입법화를 운운하며 공공연하게 부추기기까지 하였다. 지금도 김강자 서장을 앞세워 미성년 매매춘을 단속하고 있지만 그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 미성년 매매춘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는 것이며 또한 단속 이후 그런 생활을 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는가 하는 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6) 군복무가산점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지난 말 때 불췌하게 했던 군복무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이것을 성의 대결로 만들어가면서 결국 다시 군복무가산점제를 인정해버린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사회 차별이고, 사회가 그 책임 짐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직업에 대한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균등한 역할이 아닌 소극, 차등의 위치로 규정되고 사회화과정에서부터 고쳐나아가야 한다. 교육, 언론, 대중매체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쳐나아가야 한다. 군복무가산점제 또한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군복무가산점제 폐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본질적으로 조국통일 일을 앞당기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7) 제도적으로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을 위한 이복과 의 민간교류를 보장하라.

분단으로 인해 이 땅은 군사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은 사회의 주체가 기보다는 객체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이남 당국이 이러한 정책적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시급히 어둡히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작년에 우리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수많은 만남을 시도해왔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은 거의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법이 되었다. 올해는 남과 북의 그러한 계획들이 더 많이 짜여져 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식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장구를 통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누구나 통일을 원한다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조국 분단을 영구화하는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간교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8)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수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성에 대한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많은 성폭력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큰 부분이다. 성폭력 방지

특별법을 제정했으니 성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각 지역, 단체에서 성폭력 방지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학내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수, 교직원, 외부인,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도록 예방과 처벌 차원의 성폭력 규제 확충을 제정하도록 교육부, 대학당국에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9) 여학생 대학 졸업자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라.

예전에 비해 고학력의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의 기회나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지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이후 또다시 좋은 데로 시집가려면 혹은 대학이라도 나와야 하는 식으로 여성을 교육, 소비자로만 전락시켜버린다. 여성의 실업률 가운데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은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이다. 대부분 이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들이 많은데 이를 보더라도 여대생의 고용 현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여학우 대졸생을 소비의 주체가 아닌 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대학교육과 인식 및 고용창출을 요구한다.

10) 자주민중투일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한총련의 10대 요구안을 적극 지지 하며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4. 10대 요구안 활용방도 및 총선 투쟁 방도

1) 요구안 선전과 지지 사업을 학내에서 대대적이고 대중적인 실천투쟁으로 만들시다.

- 요구안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

- 요구안에 대한 해설 선전과 일대일 만남

2) 총선투쟁을 우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펼쳐내는 방향에서 만들어 감시다.

- 각 대학은 그 지역에 출마하는 인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안을 전달 하고,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 공개적인 답변이 없거나 거부할 시에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낙선대상자로 삼아 학내에서 낙선투쟁을 진행한다.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은 지지운동을 벌여도 좋다.

- 요구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지금 정치권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현 정치권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3) 애국민중들에게 식민지 이 땅에서 여성의 현실을 알려내는 것이며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투쟁으로 만들시다.

- 시민단체와 애국민중들과 합의하는 투쟁으로 활용하자.

- 연대단위(노조, 농민회, 시민단체)를 만날 때 적극 알려내고 지지를 얻는다.

- 대 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때 요구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전하고, 각종 선전자료들을 풀팅이나 대자보로 알려낸다.

4) 총선 시민연대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합시다.

- 시민연대에서 제출한 투쟁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자.

- 10대 요구안에 합의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여내자.

(서명운동 총화는 4월 7일까지로 합니다. 7일 전에 대학 나름의 흐름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냅니다. 유인물화하여 통신총화하겠습니다. 각 대학 총여학 생회는 그것을 유인물로 만들어 대학에서 그리고 11, 12일 총력투쟁의 과정에서 알려낼 수 있도록 합시다. 서명용지는 찬우물에 띄우겠습니다.)

한총련에서 제출된 총선투쟁 방도를 참조하여 그 속에서 여학단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진행하고 여학우들의 참여를 높여서 성과를 내도록 합시다.

#### 5. 낙선대상자 반대성 반봉인 반민족 반민주 후보자.

##### - 낙선대상의 기준

여성비하의 발언을 한 후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후보자, 공창제도 입법화를 주장하는 후보자, 모성보호를 가로막고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며 외국의 경제와 자본을 유치하려 하고 민족경제를 망살하려는 후보자, 주 한미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자 등 반여성적이고 반통일 적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후보자.

##### -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낙선대상자

①국창근 민주당 의원 : 지난 12월 김영선 의원에게 '짜가지 없는 X' 발언 으로 물의를 빚었다. 선거법 위반과 호화의유 등의 비리예다 반복적인 저 질발언으로 리스트에 오른 국창근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정무위 회의도중 김영선 의원에게 "팔같은 게, 뺨을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는 등의 비하발 언으로 여성계의 지탄을 받았으며 급기야 김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신의원 들의 탄핵청원에 굴복, 12월 23일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까지 해야했다.

②김중필 한나라당 의원 : 86년 권인숙씨 부친 상고문 사건 당시 반인권적 발인으로 비난을 샀었다. 지난 86년 권인숙씨 사건과 관련 법사위 회의에서 한 발언이 확실한 물증으로 잡혔는데 당시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당 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상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 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단순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권 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 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공원 용지 용도변경 청탁비리 등 부패전력과 87년 6월 환경당시 반인권 발언을 한 전라도 김 의원을 낙선자 리스트에 오르게 했다.

③김종필 자민련 총재 : 63년 한일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배상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김종필 총재는 특별히 반여성적 혐의가 컸다기보다 반여성적인 사건과 연루 된 과거 전력이 있었다는 정도. 김총재는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부 패전력, 그리고 지역감정 조장발언과 개혁법안 서명거부 등으로 최종 낙선 자 명단에 올랐다.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명예로운 은퇴를 촉구 받았다.